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그 길

신윤식

길이 있음에도
가기를 망설이는 마음
그 길 낮은 길

길이 있음에도
쓸쓸함으로 가득한 마음
그 길 외로운 길

그래도 그리움 따라
혹시나 내 마음이
나 보다 먼저 가고 있을까

바쁜 마음 재촉하여
그 길목에 서면
내가 가는 어디에도
그분이 먼저 와 계신 것일요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0.14

발행호수 제20권 42호

지 난 주일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진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일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일보다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한 기적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메시아가 행할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일이었고, 세상의 개혁과도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유다의 구원자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기껏 병자와 귀신들린 자 몸이 성치 못한 자들을 상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혼란이 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고만 하질 뿐, 예수님에게 의문을 가진 요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문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네가 확신이 없느냐. 확신을 가져라’는 식으로 요한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본문 내용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칭찬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씀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

주일오전설교
눅 7:24-30

요한보다 큰 자

니다. 요한이 가장 크다면 요한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요한이 그만한 일을 했을까요?

요한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요한을 가장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 정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쳐가며 투쟁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디나 만델라란 사람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던져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단순히 유대 사회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헤롯의 죄를 책망했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내세워서 요한을 가장 큰 자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27절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한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3:1절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 받은 요한이 할 일은 주가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사자로 보냄 받은 것이 세상에서의 요한의 위치이며 이것을 두고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 말라기 선지자도 주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을 했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요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차

이는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26절).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위대한 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기준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준에 맞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란 세상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메시아를 그들 나름대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위대한 일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하실 분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는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위대한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행할 위대한 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으십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파하는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에 따라 이리 저리 흔들리는 말을 들으려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나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갔다면 그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가 오셨음을 강력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오직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요한은 가장 큰 자였고 선지자보다 훌륭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날리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을 때는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며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같은 요한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했다면 백성들은 요한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헤롯의 일을 책망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요한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가 가장 큰 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선포로 주의 길을 준비한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위대한 일을 해야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큰 자를 큰 자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8절)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셨으면서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면 그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에 여자

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요 1:12-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에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큰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크고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업적을 내어 놓고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일을 내어 놓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높이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이 정작 메시아를 밀어 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 51: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였든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의인으로 여김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크고 위대한 자로 여겼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고 그것을 자신들의 존재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낳은 자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행함이 비교가 되어 존경 받고 위대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며 살아온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인한 위대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여김 받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난 자들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크다고 일컬음 받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큰 자입니다.

본문을 보면 ‘거기서 났다’는 말이 세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4,5,6절). 그리고 7절에서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87편은 출생의 근원, 즉 존재 근원에 대한 내용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부모를 모르는 고아라면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7편에서 말하는 존재 근원은 그러한 출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87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7절의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는 구절을 보면 자신을 존재하게 한 근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데 존재의 근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무슨 대수라고 그 것 때문에 노래하고 뛰어 노느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재 근원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사람은 ‘내가 존재 한다’ 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대개 자신이 원하는 사람

주일오우설교

시 87:1-7

거기서 났다

(91강 9.16일 설교)

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나 자식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참으로 강한 것이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존재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분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근원을 하나님께 두며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서 그러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은 '나는 존재 한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해 보면 존재 가치는 분명 부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지로 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을 생각해 보면 선뜻 부자로 존재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을 두고 생각해 보면 분명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존재가 더 가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지'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는 것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거지나 부자라는 것이 그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존재 가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존재 가치를 '무엇을 가졌는가?'로 판단합니다.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가진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반면 가지지 못했거나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힘도 영광도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가 자신의 존재 근원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자신을 존재케 한 근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는 말은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근원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은 말이며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믿는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진심으로 복 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고 말합니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들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즉 이방인의 존재 근원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고 말하는 것처럼 시온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물론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시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존재하고 이방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한 민족적 문화적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 백성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롬 9:24,25절을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

이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백성이라 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던 우리를 사랑한 자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신자 된 우리의 존재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우리를 노래하고 뛰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아굽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산,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베풀어짐으로써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사랑 밖에 있는 자가 사랑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시온의 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피로 용서함을 입은 신자들이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수를 세시고 등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존재 근원이며 노래하고 뛰며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문제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문제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사라질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존재하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는 자와 용서 밖에 있는 자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구분되어 그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신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 아래 있게 한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면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빛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한 그가 곧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말씀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빛과 상관없이 이방인이 가는 어둠의 길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유다 형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고 말합니다. ‘레바논의 눈’은 레바논 높은 산에 쌓인 눈을 뜻합니다. 높은 산의 눈 녹은 물이 들의 바위를 떠나지 않고 늘 흐른다는 뜻입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는 말도 레바논 높은 산의 눈 녹은 물이 흘러 내려 땅속에 스며들어 저장되었다가 땅을 파면 물이 솟는 것을 찬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바논의 눈은 녹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재함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레바논의 눈으로 녹아 흘러 내려서 마르지 않은 말씀으로 존재해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말씀이 그들 마음에 늘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을 찾아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한 일로 말합니다. 우상

수요일설교
렘 18:13-23

예레미야를
치자

(49강 9.19일 설교)

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는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했다면 어쨌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노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을 그들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에 의해서 예배당을 찾은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나 기쁨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자신의 기쁨, 즉 취미 생활의 수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허무한 것을 좇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한 대로 그것이 영원한 웃음거리가 됩니다. 유다가 이 같은 웃음거리가 되는 길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무엇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방인들처럼 강하고 부요한 나라로 존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꾀를 내어서 자신을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레미야를 죽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지혜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없어도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듣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없어도 그들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여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여기고 있는 제사장, 지혜로 여기고 있는 지혜자,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을 유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다 백성에게 참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으니 참된 말씀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좇고 있는 허무한 것을 버리고 싶은 많은 마음에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침으로써 귀찮은 존재를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것으로, 자신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없어도 그들에게는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이 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그들 신앙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에 예수님에 대해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된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없으면 안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세상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돈에 대해 아쉬워 할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참된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됨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이런 말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세상은 돈 없이는 못산다고 하지만 신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를 알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흐르는 신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허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신자이기를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83(83)장

교 독 : 30(시67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26(215)장

성 경 : 눅 7:24-30

말 씬 : 요한보다 큰 자(3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3(403)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65(199)장

기 도 : 한옥섭 권사

찬 송 : 301(460)장

성 경 : 시 91:1-16

말 씬 : 하나님을 향한 신뢰(95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49(431)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53강)

■ 교회소식 ■

1. 현재 대다수의 교회가 새로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관계로 은석교회도 2013년부터는 새로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윤식 목사 휴가 : 10.22(월) - 11.2(금)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도옥희 권사

이단 ①

나는 평소에 이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신천지라는 단체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며 여기저기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의 말을 할 때도 은석교회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고 '아 그런 게 있나보다'라며 스쳐 들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총회 청년부원으로 수련회 준비를 위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번 수련회 때 성령과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청년 회장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다른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단에 대해 특강을 하기로 하게 된다. 이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깊이 공부해보지도 않았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내가 성령에 대해 강의를 하겠다며 다른 분에게 이단 강의를 부탁을 했지만 결국 이단강의가 내 몫이 된 것이다.

평소에 이단이라고 하면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구원파, 영생교, 다락방, 물몬교 등등 몇몇 단체만 떠올렸는데 이단에 대한 자료를 찾아 공부 해가면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곳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곳 외의 교회는 다 정통이고 옳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 할지라도 추구하는 바가 성경적이지 아니라면 분명 복음에서 떨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경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도 하는 말이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같이 성경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각기 생각하는 성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성경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만 초점을 둔다. 아예 애당초 성경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성경적이고 정통의 교회로 보이기 위해 '오직 성경 중심'이라는 말을 외치는 것이다. 성경으로 자신의 이단성을 가리고 위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단이 위장하고 있는 성경의 허구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내면의 실체를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신자의 몫인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 등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이단이라고 경계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의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는커녕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단에 대해 공부하면서 요즘 교회 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관상기도, 알파 코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차차 살펴볼겠지만 답답한 것은 목사조차도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살펴볼 생각은 전혀 없이 다만 새로운 것이라는 차원에서 무작정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성경으로 복음만 전하는 일에 식상해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생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또 증거하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일일 텐데 왜 들 그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 내려고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관상기도나 알파 코스나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만 전하는 복음에 식상해진 사람들이 교인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한가? 그렇다면 부족하다. 단 교회를 향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부족할 뿐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문제에서는 어떤가?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다.